낯설지만 부담 덜고 모험의 세계로

예술극장

연극·무용·설치·영상·퍼포먼스 등 22개국 29명 작가 참여 33편 작품

"여행을 떠날 때처럼 예술에서도 모험을 즐겨라."

지난달 광주를 찾은 세계적인 공연 예술 전문가 프리라이젠이 한 말이다. 새로운 예술을 경험하는 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처음 시도는 낯설고 어렵지만 그 속에 새로움과 흥미로움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즐거운 체험도 없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은 22개국 29명의 작가가 참여한 33편의 작품이다. 연극, 무용, 설치, 영상,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서로 다른 장르간 결합과 각국 작가들의 협업도 눈에 띈다.

개관 패스티벌 작품은 '아시아 동시대 예술'에 주목한다.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러시아,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도 대거 참여, 다양한 시선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 공간은 예술극장의 2개 공연장과 로비, 리허설 스튜디오 등 극장 공간과 함께 광주여고 체육관, 광주극장, 빛고을시민문화관, CGI센터 등으로 확장됐다.

참여작가 중에는 칸느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가인 태국의 영화감독 아피찻퐁 위라세타쿤과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장자인 대만의 차이밍량 감독이 눈에 띈다. 올 봄 광주를 다녀간 두 사람은 영화가 아닌, 공연으로 예술극장에서 관객을 만남과 동시에 광주극장에서도 작품을 상영한다.

차이밍량은 37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당나라 승려 현장의 행보를 좇는 연극 '당나라 승려'는 인생의 덧없음을 합축하는 협소한 무대 공간에서 차이밍량 감독의 '페르소나'인 배우 이강생이 연기한다. 또 참여형 영상 설치 작품인 '따듬이 개 in 광주', '차이밍량의 영화관'을 선보인다.

아피찻퐁 위라세타쿤은 영상 작품 '찬란함의 무덤'과 연극 '열병의 방'을 선보인다.

중국경극원의 '홍등기'는 문화혁명 시기인 1969년 강청 예술감독 체제에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문화혁명의 아이콘을 통해 이념과 예술, 역사와 서사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던지는 작품이다.

한국의 김성환과 데이비드 마이클 디그레고리오의 음악극 '피나는 노력으로 한'은 한 여자가 그려낸 남자의 전기(傳記)로 영화, 라디오, 노래, 연극적 요소들이 결합돼 있다.

싱가포르 호추니엔의 '만 마리의 호랑이'는 아시아예술극장과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비엔나 페스티벌이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 신화와 역사, 구전동화와 기억 속에서 출몰하는 호랑이의 흔적을 재조합한 작품이다.

그밖에 영화감독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관람자들을 바라보기, 필리핀 작가 라야 마틴의 '그의 죽음은 의뭉스럽다', 말레이시아 마크 테의 '발링 회담'도 대기중이다.

광주 출신 작가로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가 참여해 '디지털 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선보인다. 고전 명화들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한 작품을 배경으로 작가 자신이 직접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디지털 다큐멘터리 연극이다. 서울 작가 서현식씨가 공동작업했다.

아시아권 작가들의 작품이 주조를 이루고 있지만 아시아 외적 시각을 만날 수 있는 작품들도 초청됐다.

이집트 와엘 샤키의 영상 작품 '카바레 십자군'은 기존 서구 시각 대신, 아랍의 눈으로 살펴본 십자군 전쟁 이야기로 마리오네트 인형이 화자로 등장한다. 또 아르헨티나의 리카르도 바르티스의 '바보 기계'는 폐쇄를 앞둔 광주여고 체육관에서 한 편의 연극적 게임을 선보인다.

광주의 8~14세 퍼포머 16명과 함께하는 영국 작가팀 에젤스의 '낮이 밤이 된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으며 성장할까 고민해 보는 작품이다.

그밖에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회의 부패, 살상, 잔혹성과 탐욕을 그린 남아공 브렛 베일리의 오페라 '맥베스'와 퍼포먼스 설치 작품 'B전시' 등도 흥미로운 작품이다.

티켓 가격은 무료부터 5만원까지 다양하다. 예술극장 홈페이지(www.asianartstheatre.org)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단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문의 062-410-361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

■ 예술극장 프로그램

작품명	일시	작가·단체	장소
다음 신의 클라이막스	9.9~10	김지선(한국)	복합 5관
피나는 노력으로 한	9.12~13	김성환(한국)/데이비드 마이클 디그레고리오	극장 2
이이남:세컨드 에디션	9.16~17	이이남, 서현석(한국)	극장 2
제로 리:퍼블릭	9.4~21	사카구치 교헤(한국/일본)	광주 동구
내면	9.18~20	클로드 레지(프랑스)	CGI 센터
아구에 축복을	9.19~20	오카다 토시키(한국/일본)	극장 1-1
홍등기	9.11~12	중국국립경극원	극장 1
자오량프로젝트(설치)동풍과서풍/검은얼굴, 하얀얼굴(영상) 베쉐모스/고소	(설치) 9.11~17 (영상) 9.10, 13	자오량(중국)	극장 오픈홀 (고소:극장1-1)
당나라승려	9.4~6	차이밍량(대만)	극장 1
차이밍량의 영화관	9.11~13	차이밍량(대만)	광주극장
따돌이 7min 광주	9.5~8	차이밍량(대만)	극장 오픈홀??
지도 바깥	9.13~14	수웬치(대만)	아틀리에1
오노 카즈오에 대하여	9.7~8	카와구치 타카오(일본)	극장 오픈홀
대행진	9.11~12	야마시타 잔(일본)	구 광주여고 체육관
단식광대	9.11~12	야다치 마사오(일본)	광주극장
찬란함의 무덤	9.7~9	아피찻퐁 위라세타쿤(태국)	광주극장
열병의 방	9.4~6	아피찻퐁 위라세타쿤(태국)	극장 2
욤마유 시	9.5~8	아라야 라스잠리안숙(태국)	복합 5관
만마리의 호랑이	9.19~20	호추니엔(싱가포르)	극장 1
그의 죽음은 의뭉스럽다	9.12~13	라야 마틴(필리핀)	ACT스튜디오2
발링회담	9.5, 7~8	마크 테(말레이시아)	아틀리에1
상아와 살에 관하여 - 동상도 고통 받는다	9.6~7	마틸레네 몬테이로 프레이타스(마카오)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관람자들을 바라보기	9.18~20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이란)	아틀리에1
디마스커스	9.13~14	아자데 샤미리(이란)	아틀리에2
신체	9.8~9	찬드랄레카(인도)	극장 1-1
우즈벡	9.16~17	탈가트 바탈로프(우즈베키스탄)	아틀리에1
이상적인 남편	9.18~19	콘스탄틴 보고몰로프(러시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카바레 십자군	9.18~20	와엘 샤키(이집트)	극장 1-1
맥베스	9.10~11	브렛 베일리(남아공)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B전시	9.11~13	브렛 베일리(남아공)	5·18민주평화기념관 컨퍼런스 홀
바보기계	9.4~7	리카르도 바르티스(아르헨티나)	구 광주여고 체육관
밤이 낮이 된다는 것	9.19~20	팀 에젤스(영국)	극장 2
봄의 제전	9.5~7	로메오 카스텔루치(이탈리아)	CGI 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오는 9월4일 문을 연다. 지난 2005년 착공 이래 10년 만에 개관하는 문화전당은 그동안 준비해온 개관 콘텐츠(공연·전시 프로그램 등)를 선보인다. 광주·전남지역민들이 풍성한 개관전치를 만끽할 수 있도록 예술극장과 어린이 문화원의 개관 축제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 민주평화교류원 등에서 선보이는 콘텐츠 등 '문화전당 100% 즐기는 법'을 싣는다.

브렛 베일리의 오페라 '맥베스'.

오타케 신로 작 '몽세리:버려진 오두막으로서 자화상'.

인형극 '깔깔나무'

어린이문화원 거리 공연 '화분인간'.

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개방…"3일 야간 투어 신청하세요"

문화전당 관람 방법은

광주시민들이 오는 9월4일 개관하는 문화전당의 4개원(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문화정보원·창조원)의 일부 공간에서 개관 콘텐츠(전시·공연 등 프로그램)를 볼 수 있게 된다.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지난 3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담장 직무대리 방선규)에 따르면 9월4일부터 전당 시설을 부분 개방한 뒤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확충,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이어 오는 12월 공식 개관식 때 민주평화 교류원을 제외하고 시설과 모든 콘텐츠를 공개한다. 민주평화교류원은 오는 11월께 조성공사가 마무리된다.

문화전당 측은 9월 개관과 더불어 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문화정보원·창조원(4관)의 부문 또는 전체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전당의 주요 시설도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콘텐츠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일·월요일은 콘텐츠와 운영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휴관한다. 전당 내·외의 광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문화정보원(라이브러리 파크)과 문화창조원 복합4관은 온라인 예약 및 현장 선착순(100명) 모집 등 절차를 거쳐 매일 3회(오후 1시, 2시30분, 4시)의 전담 투어프로그램을 진행, 전당의 내·외부 공간과 시설을 자세히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3일에는 야간 시민 전당 투어도 예정돼 있다. 오후 6시50분부터 7시30분까지 진행되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투어 신청은 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acc.go.kr)에서 투어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gjacc2015@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410-3209.

문화전당측은 3일 오후 6시50분부터 5·18민주광장, 아시아문화광장 등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아문화전당 개방축제'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축하 공연을 벌인다. 참여형 댄스 공연인 '집단 무도회'를 비롯해 레이저쇼, 아시아 차 문화 교류전, 아카펠라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전당 야외 하늘광장에서는 어린문화원의 '반딧불이의 기억'과 '뭉키즈'가 공연된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의 레이저쇼, 강운수 재즈&국악팀이 재즈공연을 펼친다. 행사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한다. 문화전당 문화정보원은 개관 기념 인문학 강연프로그램(9월~11월까지· 주 1회)도 진행한다. 9월 4일 첫 강의에는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시각예술분과 수석 큐레이터인 안젤름 프랑케씨가, 16일에는 건축가 승효상씨가 강의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갓난 아이도 어린이도 체험 속으로

어린이 문화원

공연문화축제·공연물·거리예술 등 각국 다양한 형식·스토리 펼쳐져

'어린이 문화전당'으로 불리는 어린이문화원은 개관행사로 4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공연문화축제를 비롯해 11개국 41개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 횟수로만 206차례다.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2015 어린이 공연문화축제'를 개막한 데 이어 어린이 공연물(11개 작품·133회 공연), 지역 참여공연 (11개 작품 13회 공연), 거리예술(12개 작품 42회 공연) 등으로 나눠 관람객들을 만난다.

'2015 어린이공연문화축제'는 모두 11개국 40여 팀의 어린이 공연단체와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어린이 공연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기회다. 소리동화 '부케티노(Buchettino)'를 비롯해 필리핀, 스리랑카, 스페인, 호주,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일본 등 국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형식과 다양한 스토리를 담은 공연이 펼쳐진다.

9월 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될 축제의 주요 작품은 어린이문화원이 자체 제작한 음악인형극 '깔깔나무'와 '부케티노', 2015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ASSITEJ-KOREA)가 주최한 겨울축제에서 작품상을 받은 '평강, 공주와 온달, 바보' 등이다. 또 영·유아용 연극 '달', 한국·태국·인도네시아 예술가들이 함께 만드는 '드라마텐트 인 아시아',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작은 극장'도 어린이 관객을 만난다.

'평강, 공주와 온달, 바보'는 생활소품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물체 놀이극이다. 물감통에 붓을 꽂아 만든 바보 온달, 나무 숟가락에 옷을 입힌 평강공주가 등장한다. '드라마 텐트 인 아시아'는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의 전설을 작은 텐트 안에서 듣는 작품이다. 전문 이야기꾼들이 음악, 인형, 가면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전설을 풀어낸다. '옛날 옛날에 바상할머니 이야기'는 오후 6시면 어김없이 등불을 들고 나타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상 할머니'가 주인공이다. 할머니와 거대한 책을 타고 벌이는 흥미진진한 모험이 줄거리로,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넘치는 기지가 관객 어린이의 지성과 감성을 자극한다.

'말괄괴시아 사파리 얼룩말 책'은 말괄괴시아 사파리를 망치려는 밀렵꾼에 대항하는 얼룩말 책과 친구들의 생존기를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다. 마법 같은 영상과 빛으로 펼쳐낸 드넓은 초원 그리고 말괄괴시아 유명 작곡가 닉 추의 음악과 댄스가 어우러진다.

어린이 문화원이 가장 공을 많이들인 작품은 인형극 '깔깔나무'다. 멀티미티어 셰미 뮤지컬인 이 작품의 주인공은 파니다. 파니가 인형 '곰곰이'를 잃어버린 뒤 이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우정을 나누는 동심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연출은 윤정섭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가 맡았다. 멀티미디어 인형극 '깔깔나무'는 중앙아시아 설화(원작 : "제즈테크나르, 페리, 그리고 마마이")에서 모티브를 따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주제를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과 음악을 접목하여 제작했다.

어린이문화원은 생후 10 ~ 30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연부터 청소년도 즐길 수 있는 공연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작품들이 무대에 올릴 예정이어서 어린이 나이와 성향에 맞춰 공연을 골라볼 수가 있다. 금남로공원~충장로~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어린이놀이마당 등지에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거리공연도 펼쳐진다. 그림자 체험놀이, 무용 체험놀이, 뮤지컬 체험놀이 등 연계행사와 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시민참여 공연무대, 지역극단 공연무대 등의 지역참여형 공연도 마련됐다.

어린이문화원은 개관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체험관도 시범운영한다. 체험관은 '자연과 생활', '건축 워크숍', '예술과 상상' 3개 테마로 구성된 복합 문화체험장이다. 어린이들은 이 공간에서 아시아 사람들의 일상과 사고 등을 입체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자연과 생활' 코너는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시아인의 삶을, '예술과 상상' 코너에서는 예술체험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만드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문화원은 어린이창작 워크숍 '국기로 상상하는 아시아'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아시아 어린이와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이다. 워크숍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와 창작활동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시아 국기의 색과 문양을 주제로 한 도미노게임과 각국 국기에 사용된 색과 문양을 활용한 공을 만들게 된다.

한편, '2015 어린이공연문화축제' 입장권은 홈페이지(www.childrensfestival.kr)와 어린이공연문화축제 사무국(1899-8781)에서 예약하면 된다.

유료공연 전석 1만원, 어린이 체험놀이 50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어린이 문화원 프로그램

□ 스토리 공연

작품명	일시	공연단체	장소
소리동화 〈부케티노〉	9.4~8	어린이문화원 & 소치에타스 라파엘로 산치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대연습실
물체놀이극 〈평강공주와 온달 바보〉	9.4~6	이야기꾼의 책 공연	다목적홀B
손으로 만드는 환상 쇼 〈핸드 새도 판타지〉	9.4~5	카카시좌 (일본)	어린이극장
꾀쟁이 〈모자장수〉	9.5~6	플레이하우스 코테(스리랑카)	극장3 (문화정보원)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한 가족 극장 〈노란 우산〉	9.5~7	극단보물	체험관 입구
달빛 아래 〈보석 같은 이야기〉	9.7~9	아이 시어터 (싱가포르)	극장3 (문화정보원)
말레이시아 사파리 〈얼룩말 책〉	9.7. 9	쿠알라룸프르공연예술센터(말레이시아)	다목적홀B
옛날 옛날에 〈바상 할머니 이야기〉	9.11~12	필리핀교육연극협회(필리핀)	다목적홀B
인형 음악극 〈깔깔나무〉	9.11~12	어린이문화원&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다목적홀C
베이비 드라마 〈달〉	9.10~12	어린이문화원 & 극단사다리	어린이극장
드라마텐트 인 아시아	9.2~6 9.9~12	어린이문화원 &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돔텐트A, 돔텐트B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지역참여공연

작품명	일시	공연단체	장소
남도야 놀자	9.4	극단갓돌	어린이놀이마당
흑부리 아저씨와 B-boy 도깨비	9.7	연희공동체 진달래피네	어린이놀이마당
속임수에 걸린 꾀보 토끼	9.5	교육극단 파랑새	다목적홀C
토끼 뺑튀기	9.6	희망문화협동조합	다목적홀C
도심 속 작은 무대	9.5~6	시민 참여 공연 공모 중	어린이놀이마당
가족음악회	9.12	어린이문화원	야외무대 (예술극장)

□ 거리예술

작품명	기간	공연단체	장소
퍼레이드	9.5	어린이문화원 & 라파커션	금남로공원~충장로~국립아시아문화전당
더메가폰 프로젝트	9.3~7, 9.9~12	더메가폰 프로젝트(호주)	5.18민주광장
시간 낭비 요요쇼	9.6~7	요요현상	어린이문화원일대
안녕! 기린	〃	극단히리키테올라(스페인)	〃
화분인간	〃	극단스칼초 (이탈리아)	〃
전구인간	〃	상상 발전소	〃
로봇페롤	〃	극단나무	〃
벌룬 매직 코믹 쇼	〃	클라운 진	〃
제랄다와 거인	9.9	박영희	〃
달 달 무슨 달	〃	오정은	〃
산타클로스 주식회사 방문 판매원	〃	안현정	〃
바람이 불어, 초록색 모자	〃	고민정	〃

亞 디자인·건축·사진 기획전…전당 건립과정 한눈에

문화정보원

문화정보원은 개관 콘텐츠로 라이브러리 파크(Library Park) 개관전을 선보인다. 아시아의 디자인, 근현대 건축, 사진 등 14개 주제로 나눠 '아시아문화예술 전문 아카이브'(archive·기록보관소), 한국·싱가포르 수교 40주년 기념전인 '싱가포르 아트 아카이브 프로젝트(SAAP)' 공간을 마련했다. 또 전당 설계자인 우규승 씨의 설계 당선작인 '빛의 숲' 모형 전시 등 '전당아카이브전'을 통해 전당의 건립과정을 선보인다. 라이브러리 파크는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정보공간이다.

'아시아의 책--'은 아시아문화를 재해석하고 창조적 지식의 공유를 위한 콘텐츠다. 책이 지식과 정보를 수록한 기록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예술과 접목, 새로운 예술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다. 대표적인 작품은 책을 통한 예술적 창작이다.

싱가포르 아트 아카이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교류의 거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싱가포르와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싱가포르에서 예술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작업하고 있는 작가 코느앙 호우씨가 참여한다. 작품은 지난 1979년부터 2000년까지 중요한 예술 움직임에 대한 사진, 뉴스, 책, 포스터, 브로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코느앙 호우씨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로부터 끌임없이 의미를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색다른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작가다.

작곡가 정추 선생의 아카이브.

'전후 아시아의 역사와 미술' 전시에서는 전후 아시아의 미술 전시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수집하는 아카이브다. 국가별 전시 역사 관련 자료들은 지역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현지 연구자들의 시각을 통해 아카이브 형식으로 재구성됩니다.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일본, 필리핀 등 8개국의 현지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10일간의 광주항쟁 '열흘간의 나비떼' 11월에 만나요

민주평화교류원

'광주항쟁 정신을 예술로 승화해 생동하는 아시아의 문화적 기억을 만들어가는 '감성의 공명터'를 지향하는 민주평화교류원(민평)은 광주항쟁 10일간의 이야기를 풀어낸 '열흘간의 나비떼'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광주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세계와 나누고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의 거점역할을 하기위해 제작됐다. 아쉽게도 민평콘텐츠는 11월에야 엿볼수 있다.

'열흘간의 나비떼'는 변태과정을 거친 뒤 흩연히 사라지는 나비와 같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시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을 녹여낸 전시 콘텐츠의 핵심 개념이다. 전시는 광주항쟁을 역사적으로 재현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술적 시각으로 조망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관람객들이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전시는 옛 전남도청 등 광주항쟁 관련 건물 5개 동(옛 전남도청 본관, 경찰청 본관, 민원실, 회의실, 상무관)에서 22개 전시 콘텐츠로 나뉘어 선보인다. 5·18 당시 상황을 기·승·전·결로 표현한 작품들이 설치된다. 작품들은 5·18 당시 도청 분수대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 횃불 대성회를 시작으로 급남로 앞 집단발포, 해방공간, 마지막 항전에 이르는 극적인 10일간 여정이 담겼다.

'오래된 연못'

옛 경찰청 본관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작된 시민의 횃불 성회와 5·18의 변곡점이 된 금남로 집단 발포 현장이 그려진다.

이 장면은 '아우성'이라는 콘텐츠로 구현되며, 관람객들이 손으로 만지면 영상과 글씨가 흐트러지는 체감형 방식으로 제작됐다. 작품 '깨어진 거울'은 유럽 전위예술가인 피스톨레토씨의 작품 개념을 빌려온 것으로, 시민들을 향해 집단발포가 이뤄졌던 금남로 현장을 깨진 거울로 이미지화 했다.

전남도청 회의실에서는 시민군들의 최후항전을 앞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과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을 모습을 담은 '죽음의 행진'을 형상화한 작품이 관객을 만난다.

아시아 역사·문화·경제…'신화와 근대, 비껴서다' 전시

문화창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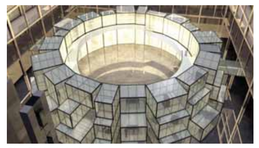
문화창조원은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융·복합 콘텐츠를 개관전에서 선보인다. 문화창조원이 지향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전시다. 문화창조원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신화와 근대, 비껴서다' 전시를 복합 4관에서 연다. 세계적인 큐레이터인 안젤름 프랑케(Anselm Franke)가 총괄 기획한 이 전시에는 아시아의 유명 작가들이 참여했다.

복합 4관에서 선보이는 ' 신화와 근대, 비껴서다'는 아시아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거대한 강(江) 통해 '경계와 구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품이다.

복합3관에서 펼쳐지는 '프로젝트 유라시아'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유럽과 아시아의 문명과 국가들간 중첩된 영토 영역을 시각화하는 영상물을 통해 조망하는 전시다.

문화창조원은 9월4일 개관 이후에서 콘텐츠(전시·공연 프로그램 등)를 확충 오는 11월께 차례로 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복합1관의 개관전시는 'The Ground - New Making' 이다. 'The Ground'는 최첨단 영상시설을 갖춘 문화창조원 복합 1관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전시에서는 작가, 공학자 등이 영역을 넘나들며 작품과 문화상품을 만들어내는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창조원의 전시 이미지.

복합2관의 전시 주제는 'Imaginary Circle, Asia Plastic Myths'(상상원 아시아· 플라스틱 신화)이다. '상상원 아시아'는 40여 개의 다양한 크기의 공간들이 큰 원형을 이루고 있는 문화창조원 복합2관의 이름이다. 플라스틱 신화(Plastic Myths)는 아시아의 신화를 창조적 모티브로 활용한 전시다. 예컨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아이언맨과 같은 현대의 영웅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캐릭터를 제시하는 것이다.